

## 골이식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시 임프란트 (Tapered Screw-Vent implant, Pitt-Easy implant) 동시 식립의 후향성 연구

장호열<sup>1</sup>, 김현철<sup>1</sup>, 이상철<sup>1</sup>, 이장렬<sup>2</sup>

<sup>1</sup>리빙웰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sup>2</sup>리빙웰 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이 후향성 연구의 목적은 골이식과 임프란트 동시 식립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증례들을 통해 임프란트의 생존률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위축된 상악 부분 무치악 혹은 완전 무치악 환자 354명이 선택되었다. 상악동 거상술은 측벽 접근술, osteotome technique 혹은 sinus drill을 사용하는 치조정 접근술이 사용되었다. 골이식재는 자가골, 동종골 혹은 합성골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상악동 거상술 시 상악동저 하방의 잔존 치조골 높이와 관계없이, 총 614개의 임프란트(Tapered Screw-Vent implant, Pitt-Easy implant)가 동시 식립되었다. 3-6개월 후 임프란트는 보철을 수복을 통해 부하가 가해졌으며, 평균 follow-up 기간은 34.7개월 이었다. 임프란트와 거상된 상악동을 평가하기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가 술전, 수술 직후 그리고 12개월마다 시행되었다.

술전 잔존 치조골의 평균 높이는  $6.1 \pm 3.2\text{mm}$  (range: 0-12.5 mm) 이었고, 소구치부와 구치부에서 각각  $7.2 \pm 3.3\text{mm}$  와  $5.8 \pm 3.1\text{mm}$ 였다. TSV 임프란트는 14개의 임프란트가 치유 기간 중 골유착이 되지 못해 실패하였으며 2개의 임프란트가 기능적 부하가 가해진 후 실패하였다. Pitt-Easy 임프란트는 3개의 임프란트가 치유 기간 중 골유착이 되지 못해 실패하였으며 기능적 부하가 가해진 후 실패는 없었다. TSV와 Pitt-Easy 임프란트의 전체 생존률은 각각 96.9%, 97%이었고 두 임프란트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p > .05$ )

상악동 거상술에서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임프란트 동시 식립은 예지성이 있고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술식이다.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지 2009;28(1):29-40]

Key words: Maxillary Sinus Floor Augmentation and Simultaneous Implant